

마포공단 전통시장과 푸드트럭이 함께라면?

청년창업 · 일자리 업,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

2017년 08월 08일 (화) 10:33:03

주현태 [✉ gun1313@naver.com](mailto:gun1313@naver.com)



▲ 마포공단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거리시안.

[시정일보 주현태 기자]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김영식)은 서울시로부터 푸드트럭 시범거리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공사를 진행중이다.

푸드트럭이 들어설 공간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맞은 편 마포농수산물시장 중앙로 446㎡ 면적에 10대의 푸드트럭이 들어설 예정이다.

이번 조성되는 푸드트럭 거리는 스포츠와 문화, 음식이 융합된 공간으로 꾸며진다.

공단 관계자는 “월드컵 공원 근처로 월드컵경기장과 난지캠핑장 등 레저와 휴식공간이 많다”며 “푸드트럭을 통해 친환경 힐링·스포츠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문화거리를 조성 하게 된다”고 말했다.

공단은 이번 푸드트럭 거리 조성이 서울시와 마포구의 관심사인 청·장년 예비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주말 먹거리 장터 등과 연계해 서울 서북권역을 대표하는 푸드트럭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영업 개장일은 9월16일 예정이다. 신청대상 및 영업 절차, 선정 방법 등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.

김영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"푸드트럭은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효과적 산업"이라며 "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자세한 사항은 시장사업팀(300-5061)으로 문의하면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및 영업자 공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.